

뉴스 & 뉴스

전국 승가학인대회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도약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제9회 전국승가학인대회가 전국전통장원연합회의 주관으로 24일~25일 경기도 화성 신홍사에서 열렸다.

승가학인연합체육대회는 법고 창불경연대회, 학술발표 등 문화행사와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통해 학인 상호간의 일체감형성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참사람결사 도반과 만남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과의 만남'을 31일~11월 1일 1박2일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97년 7월부터 시작한 참사람 수행결사를 되짚어보고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은자 기자

사면·복권추진위 발족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추진위원회가 1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94년 종단 개혁과정에서 제적, 체탈 도첩 등의 징계를 받은 1백80여명 스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결성된 추진위는 △사면복권추진 △원주 스님 3선지 △불법에 귀의할 것 등을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jytlm@buddhapia.com)

나라안정 기원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인왕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장)는 19일 오후 3시2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나라안정기원불교지도자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화종, 대각종, 천우종, 율곡불교 등 20여개 종단 대표와 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보광사 장기수모역 참배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지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이하 천정연후원회)와 함께 파주 보광사 장기수 및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보광사 주지 효문스님, 천정연후원회와 불교장기수후원회 회원, 장기수 이종 관각기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도필선 기자

수물실종선원 위령제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9일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 선상에 지난 8월 백령도 근해에서 수물실종된 선원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8월23일 15일간의 일정으로 12명의 선원이 출항한 이후 수물돼 9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선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상으로 마련해 열린 것이다. 이희명회 명예기자

불자 장기기증·화장 '소극적'

서천사·한국MSI, 광명시민 500명 조사

화장찬성, 천주교-개신교-불교인順 장기기증 희망자중 70% 개신교인

불자들이 타종교인들보다 화장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기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지도와 의식도 타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람직한 장묘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불자 180명 가운데 46%만이 '화장'에 찬성한 반면 천주교인(76명)은 69.6%, 개신교인(110명)은 60%, 무종교인(148명)은 56.9%가 각각 화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장기기증에 대해 잘 알려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천주교인의 95.7%, 개신교인의 69%, 불교인의 54.7% 순으로 나타나 무종교인 응답자의 73.4%보다 낮았다. 게다가 장기기증 서명운동 참여 희망자의 대부분인 70%가 개신교인으로 나타났으며, 불교 등 기타 종교인은 20%에 그쳐 불교인의 소극적인 장기기증 의식을 보여줬다.

가 비관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장방안 선호'를 택한 이유로는 '국토가 줄고 자연이 파괴되므로'가 35.3%, '죽은 후의 몸은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가 13.8%, '묘지를 잘못 써 화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가 9.4% 등으로 밝혀졌다.



◇생명나눔실천회와 서천사는 10. 11일 오후 광명시청 앞 상가지역 광장거리에서 '장기기증 및 화장문화 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이날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계속된다.

선교행위 초등교사에 경고

성동교육청, 관내학교에 선교금지 공문

공립 초등학교에서 특정종교 선교활동을 벌인 교사에게 경고 및 정보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8일 교육초교 박학희교사의 선교행위(본지 192호 23면 참조)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정,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전보(인사)시 타교로 전출토록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 중립)의 범정신을 주지하여 교내에서 불법적인 특정종교 선교로 물의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길 바란다'는 공문(초등 16300-1329)을 보냈다. 이와관련 민원을 제기한 효성스님(용암사 주지)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종결하기로 용암사 사부대중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현장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jwkim@buddhapia.com)

교계복지관 '희망의집' 속속 개원

교계 복지관에 실직노숙자 원터인 '희망의 집'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자양·청담복지관 희망의집이 개원한데 이어 승가원 산하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스님)은 이달 초 복지관 내 지하공간을 개·보수해 '길상희망의 집'을 개원, 실직노숙자 17명을 입소시켰다.

처음으로 10명의 여자 노숙자를 수용했다. 이밖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이달중에 40명 수용 규모의 노숙자 원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 교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모두 5곳이 될 예정이다. 희망의집에 수용된 노숙자들은 저녁과 아침식사 등 숙식을 제공받고 낮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재활에 나서고 있다. 김재경 기자

장묘법 개정따른 불교계 대응모색 22일 불교복지포럼 열린다

장묘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불교복지포럼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스님)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사회복지대학 강의실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불교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의 주제발표와 한마음선원 금강지원장 무애, 영각사 주지 현법, 오봉장사 주지 성조, 유정석 사회복지재단 전문위원 등이 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장묘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의시설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교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및 장묘문화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포럼은 화장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교계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전통문화대학 건립 2000년 부여에 개교

국내 최초의 문화재 관련 특수대학인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여에 건립된다. 13일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건설공사가 다음달 초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연구교육촌에서 시작된다. 2000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4년제 국립대학으로 총 5만여명 부지에 건설되며, 개설과제는 전통건축학과를 비롯해 전통조경, 문화유적, 보존과학, 문화재관리, 미술공예학과 등 6개 학과이다. 학생정원은 미술공예학과가 40명이고 나머지 5개 학과는 20명씩이다. 강지연 기자

실직자 포교책자 '소중한 인연' 발간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는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책자(소중한 인연)를 펴냈다. 문교관 34쪽의 분량으로 제작된 '소중한 인연'에는 불교기초교리는 물론 신앙안내 및 경구 설명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 '백척간두진일보'와 같이 관공구처럼 쓰이고 있는 화두를 쉽게 설명, DIF로 실외에 빠져 있을 실직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고 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전국 회원사찰과 실업대책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배포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율 5%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6만8천여점이고 외국으로부터 환수된 문화재는 5% 수준인 3천7백7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 의 공·사립 박물관 소유 문화재를 대상으로 파악된 것이며, 개인 소장 문화재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가 13일 국회 문화관광위 신청위원회(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외국 박물관 소재 문화재는 미국(1만5천4백14점), 영국(7천1백89점) 등 18개국 6만8천5

백20여점이다. 문화관광부는 유출문화재에 비해 환수율이 적은데는 우리 문화재의 최대 소장국인 일본(3만2천2백67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1천5백18점) 등 문화재 수탈국이 '문화재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기피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jygnag@buddhapia.com)

승가원 그룹홍장애인 설악 대청봉 정복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 산하 그룹홍의 정인지체 및 지체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설악산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 성북그룹홍의 4명, 강북그룹홍의 1명의 대상자와 시각장애인 2명, 성북그룹홍 생활지도원 지명스님과 심재숙씨를 주축으로 한

자원봉사자 2명, 관동대 산악부 4명, 불교TV 제작팀 등 총21명은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훈련과 도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등반을 기획했다. 이번 등반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1인1조가 되어 오색약수터-대청봉-봉정암-설악봉 등을 무사히 등반했으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재경 기자

자원봉사에도 색깔이 있는가. 올해 3월부터 장애인과 무의탁노인, 소년 소년가장들이 살고 있는 중랑구 산내동 서울시립대복지관에서 반찬봉사를 해 온 흥회숙씨는 얼마전 복지관측에서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반찬봉사를 운영하겠으니 손을 떼라고 요구해 오자 기가 막혔다.

자신도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반찬봉사를 해 온 그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복지관측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반찬봉사를 신내동 D교회가 맡아 하기 시작했다. 흥씨는 그래도 누가 하든 어려운 이웃에게 매주 반찬을 나눠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매주 배달되던 반찬이 격주로 배달되고 양과 종류도 훨씬 부실하게 전달되자 지역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불안한 나머지 전화를 걸어왔다. "왜 반찬을 안주냐" "D교회에서 주는 반찬은 안먹겠

주었다. 지역 동장님들도 다시와서 반찬봉사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신내동 새마을부녀회와 중랑구 장애인협회에서도 도와주겠다고 밝혔고 나서서 다음주부터 다시 반찬봉사를 나갈 계획"이라는 흥씨는 "정당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를 복지관측에 깨우쳐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로써 통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마음도 사랑과 자비로 한결같다. 야박하게 종교성을 따지며 편을 가르는 시립대 복지관측은 편협한 발상에서 벗어나 복지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ejlee@buddhapia.com)

자원봉사 방해

다"면서 말이다. 급기야 복지관측에 어떻게 된 일이라며 항의를 했으나 "복지관 사업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지역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노인, 장애인들이 흥씨에게 힘을



이 은 자 (취재 1부 기자)

Advertisement for '고려대장경해제' (Goryeo Daejanggye Haese). It features a row of books and text describing the project's goals, including the release of 1,845 volumes and the creation of a digital edition. Contact information for Goryeo Daejanggye Research Institute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향비' (Hyeongbi) face cream. It highlights the benefits of the cream for skin health, particularly for women, and includes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Contact information for Goryeo Daejanggye Research Institute is provided.